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4호 HYUNBULNEWS.COM 2026년 1월 28일(음력 12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산불 피해 사찰림 맞춤형 복구 필요”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1월 22일
경북 산불 피해조사 최종보고회
장소마다 달랐던 ‘산불의 얼굴’
“사찰림 복구, 일률적 벗어나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지역 사찰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사찰별 피해 양상과 맞춤형 복구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사회부장 진성 스님)와 사찰림연구소(소장 오충현)는 1월 21일 의성 고운사 템플스테이관에서 ‘경북 산불에 따른 사찰림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사찰림 복구가 더 이상 획일적인 조림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를 진행한 오충현 사찰림연구소장은 사찰림의 산불 피해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찰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사찰별 복구 방안을 발표했다.

사찰림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고운사 사찰림 전체면적 247.50ha 가운데 97.71%에 해당하는 241.83ha가 산불 피해를 입었다. 의성 구인사는 87.78%, 옥련사는 32.99%, 운람사는 64.71%가 산불로 소실됐다. 또 안동 봉황사는 92.93%, 선찰사는 83.82%, 용담사는 89.95%를 잃었다. 청송 수정사는 91%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북 사찰의 피해현황과 복구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동참자들은 사찰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현황에 맞는 복구를 진행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단순복구를 넘어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유사 기후대 사찰림 복구·식재 시 참고 가능한 시범 사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불 피해상황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7.71%가 소실된 고운사 사찰림의 경우 경내 수목 피해는 적으나 전각 주변 소나무림은 고강도 피해로 교목·아교목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다. 침엽수림 피해율이 98%를 넘었고 고강도 피해 비율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찰림연구소 측은 전면 조림보다는 단계적 복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장조사 결과 소나무림은 상층과 하층이 모두 전소된 지역이 많았고 일부 참나무림에서만 교목층 생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유산과 경내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주변 50m 이내 소실된 소나무 위험목을 제거하고 완충지대에는 동백나무 등 내화성 상록교목을 시범 도입해 기존 소나무림 대체하는 등 생태복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용담사 역시 피해 규모가 컸다. 사찰림 240ha 중 89.95%가 산불 피해를 입었으며, 침엽수림과 혼효림, 활엽수림이 고르게 영향을 받았다. 사찰림연구소는 경사가 급하고 토심이 매우 얕은 상황에서 초기 복원은 사면 안정화와 토양 유실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나무림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상층 식생이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인위적 복구 계획 수립은 불필요하고 자연 복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용담사에는 자연천이에 의한 회복 과정을 유지하면서 식생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복원 전략이 제시됐다.

안동 봉황사와 선찰사의 피해 면적 비율은 각각 92.93%, 83.82%로 높았지만, 피해 강도는 상대적으로 저강도~중저강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불이 숲 전체를 훑고 지나갔지만, 수관 전소보다는 지표화 위주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본방향은 자연 복원을 유도하고 토양 유실 방지 등 최소한의 사면 안정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의성 운람사와 구인사는 사찰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사찰 뒤편 소나무림에서 고강도 피해가 집중됐다. 반면 참나무림 지역은 상당 부분 생존해 임상별 피해 격차가 뚜렷했다. 사찰림연구소는 이들 사찰의 복원 방향으로 소나무 고강도 피해지역은 피해가 경미한 굴참나무림 등 주변 잔존림에서 종자를 확보해 보완하고 혼효림 및 참나무 피해지역을 확대해 산불 저항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옥련사는 전체 사찰림의 32.99%가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 저강도 피해에 그쳤다. 청송 대전사는 피해율이 1% 미만으로 사실상 산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사찰이 위치한 지형과 식생 구조, 기존 숲의 다양성이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사찰림연구소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쳐 1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월 21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진관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한걸음 고불식’이 봉행됐다. 이번 단기출가학교에는 여성 9명이 입교했다.

“부처님 되겠다” 서원 품은 7일 출가 여정

“부처님 법 만나 마음을 돌이키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벗어나 진리의 길, 수행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삼보에 귀의해 자비와 지혜를 키워 스스로를 이익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출가자 급감의 현실을 극복하고 출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권역별 단기출가학교 개설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진관사가 여성 수행자를 대상으로 출가학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1월 21일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 함월당에서 봉행된 ‘진관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한걸음 고불식’에서 9명의 입교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6박 7일 짧은 시간이나마 세속의 일을 내려놓고 출가자의 옷을 입어 계율을 익히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출가는 현재 조계종의 가장 큰 화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가는 고통의 집을 벗어나 가장 자유로운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출가 장려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고불식에서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스스로 주인이 돼 평화로 나아가길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6박 7일 일정은 실제 행자 일상을 온전히 살아내는 엄격하고도 장엄한 수행의 시간”이라며 “예불, 발우공양, 선명상, 참선 수행은 망상을 줄이고 본래의 고요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수행의 길을 걷고자 원력을 세울 시 종단이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하기도 한 스님은 “출가는 개인의 해탈을 넘어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원력”이라 강조하고 “오늘 내딛는 ‘한걸음’이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닫고 삶의 주인이 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내 안의 부처님’을 강조했다. 스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정원’ 진관사에서 부처님 법향을 익힌다면 생각이 지혜로 바뀌고,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고, 중생이 부처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날마다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부처님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관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개최
1월 21일 함월당서 고불식 봉행
‘한걸음, 나를 만나는 길’ 슬로건
6박 7일 동안 엄격한 청규 준수
진우 스님 “든든한 인연돼 줄 것”

‘한걸음, 나를 만나는 길’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단기출가학교에는 다양한 연령대 여성 입교자 9명이 함께한다. 입교자들은 1월 26일까지 단순히 사찰에 머무는 템플스테이를 넘어 실제 출가자가 겪는 ‘행자 과정’을 그대로 수행한다. 6박 7일 동안 새벽예불, 108배, 발우공양, 묵언, 오후 불식 등 엄격한 청규를 준수하며 수행자의 일상을 온전히 살아내게 된다. 특히 진관사 특성을 살린 사찰음식 체험, 선명상, 자비수참 등을 23~25일 경험할 예정이다. 마지막 밤, 철야정진과 성도재일 정진을 이어갈 입교자들은 1월 26일 수계식과 함께 회향한다.

이날 출가학교 입교자들은 교무 선행 스님이 대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히 따르고 한 생각, 한 생각마다 청정한 마음을 지니며 하루 하루를 도의 맑고 청정한 향기로 채우고자 하니 바른 길인 정법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고 게으름과 방일을 멀리하게 해달라”면서 “모든 도반들이 향기로운 법의 빛이 가득해 서로를 공경하고 함께 이끌어 주며 수행의 벗으로서 함께 정진하게 해달라”고 불보살 전에 서원했다.

진관사는 단기출가학교 프로그램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후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가 및 조계종 사미니 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네이버 밴드 등 SNS를 개설해 동문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밴드에는 일주일에 2회 부처님 말씀을 게재해 신심이 증장되도록 하고 각자 작성한 수행 일기를 매주 한 번씩 법사 스님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진관사 일정과 행사, 다음 단기출가학교 등에서 자원봉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권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계종은 교구본사 단기출가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선(禪)출가학교를 처음 실시했으며 선운사는 11월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강원권에서 신흥사, 영남권에서는 범어사와 통도사 직지사에서 출가학교가 이어질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동방불교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2025.12.22~2026.02.05
동방불교대학 QR code

모집학과
불교학과
2년 과정
인터넷 강의
범패학과
2년 과정
주 1회 출석 강의

자격 및 서류
자격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서류전형
제출 서류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선택발급)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교부
대학 홈페이지: http://dongbang.org/
원서 접수 기간
2025.12.22~2026.02.05
접수처 (우편,팩스,이메일)
팩스: 02-733-0728
이메일: dongbang2030@naver.com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02-745-2030
010-3224-3454
합격자 발표
2026.02.26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우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1층 TEL: 02-745-2030 FAX: 02-733-0728